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아우모비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참가...

휴머노이드 로봇 위한 차량용 기술 공개

- 아우모비오 엔지니어링 솔루션즈(AES)가 개발한 차량용 오디오 기술 ‘액추에이티드 사운드(Ac2ated Sound)’, 휴머노이드 플랫폼 최초 적용... 로봇 외장 패널을 음향 출력 면으로 활용해 기존 스피커 인클로저 없이 음성 출력 구현
- 고성능 컴퓨팅(HPC)·카메라·관절 센싱 기술 전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양산 전환 지원
- 19 일 ERTICO 부스서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특별 연설 진행... 총회 기간 중 아우모비오 전문가들도 세미나 세션 참여

강릉, 2026 년 10 월 20 일. 기술 및 전장 기업 아우모비오가 10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ITS World Congress)’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사의 차량용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우모비오는 ERTICO(ITS 유럽) 부스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에 최초로 적용된 자사의 ‘액추에이티드 사운드(Ac2ated Sound)’ 기술을 시연하고, 로보틱스 영역에 활용 가능한 컴퓨팅, 카메라, 관절 위치 센싱 기술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분야에서 아우모비오의 차량용 기술과 제조 전문성이 향후 휴머노이드 플랫폼 및 산업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우모비오는 자사 제조 현장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범 도입해 평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의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양산부터 품질 관리와 공정 추적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아우모비오가 자동차 산업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은 센싱, 컴퓨팅, 제조 품질 전반에서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ITS 세계총회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를 자동차 부품 업체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액추에이티드 사운드는 자동차 기술이 로보틱스 분야의 공간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은 실질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의 주요 시연은 아우모비오의 ‘액추에이티드 사운드(Ac2ated Sound)’ 기술이 탑재된 로봇 기술 기업 ‘애니버스(Anyverse)’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아우모비오가 해당 기술을 휴머노이드 플랫폼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26 년 4 월 애니버스 다이내믹스(Anyverse Dynamics)와 아우모비오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우모비오의 오디오 전문성과 애니버스의 유연한 임바디드 AI 로보틱스 플랫폼을 결합해 다양한 환경과 용도에 맞춘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액추에이티드 사운드는 외장 패널 자체를 진동시켜 소리를 출력하는 혁신적인 스피커리스 오디오 기술이다. 초소형 엑사이터(exciter, 진동 발생 장치)가 패널 표면에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미 자동차에 활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기존의 스피커 인클로저나 그릴 없이 패널에서 직접 음성을 출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내부 공간을 절약하고 먼지나 수분의 잠재적인 유입 경로를 줄일 수 있다.

로봇은 외장 패널을 통해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을 출력하고, 이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오디오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 구조에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더욱 몰입감 있고 사람과 유사한 상호작용 경험을 구현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이와 함께 로봇의 핵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부품 기술도 소개한다. 먼저 차량용 제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HPC) 기술은 각종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추론을 실행하며 로봇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컴퓨팅 시스템은 로봇틱스 요구사항에 최적화되지 않은 기성(off-the-shelf) 멀티보드 구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아우모비오는 엔비디아(NVIDIA)의 시스템온칩(SoC) 기술 기반 차량용 고성능 컴퓨팅 아키텍처를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범위에는 카메라 지원과 동작 제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향후 산업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 컴퓨팅 플랫폼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카메라 기술도 선보인다. 카메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중 카메라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서, 차량용 서라운드 뷰 시스템에서 이미 자리 잡은 GMSL(Gigabit Multimedia Serial Link)이 영상 전송에 선호되는 인터페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차량용으로 양산 중인 아우모비오의 3 세대 위성 카메라는 GMSL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내구성, 저전력, 교체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물체 조작, 이동 및 장애물 회피 등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양한 기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관절 센싱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향 및 모터 위치 센싱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용 자기식 센싱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의 각도와 속도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관절 움직임을 정밀하게 피드백하는 엔코더는 로봇의 팔, 손목, 다리 등의 동작 제어를 지원한다.

기술 전시와 더불어,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10 월 19 일 ERTICO 부스에서 30 분간 특별 연설을 진행하고, 연결성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서 검증된 기술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아우모비오의 각 분야 전문가들도 세미나에 참여해 연결성, 측위, 공급업체 혁신 및 도로 안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로버트 지(Robert Gee) 텔레매틱스 IP 매니저는 10 월 20 일 5G 및 ITS 연결성을, 22 일에는 정밀 측위와 데이터 품질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하일 가이아누(Mihail Gaianu)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효율적인 모빌리티와 물류를 위한 데이터 공유를 주제로 발표한다. 베티나 에르데름(Bettina Erdem) 규제 업무 매니저는 22 일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을 활용한 교통약자 보호 방안을, 23 일에는 V2X 도입과 지속적인 운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우모비오(AUMOVIO)는 2025 년 9 월 분사를 기점으로 독립 기업으로서 새롭게 출범하며, 기존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그룹 부문의 사업을 이어간다. 아우모비오는 기술 및 전장 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 안전성, 흥미성, 연결성,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센서 솔루션, 디스플레이, 제동 및 컴포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플랫폼, 보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모비오는 2025 년 185 억 유로(한화 약 32 조)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0 여 개 지역에서 약 82,000 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

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아우모비오 코리아(주)

+82-70-7914-4942

Hyukchul.choi@aumovio.com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사진자료/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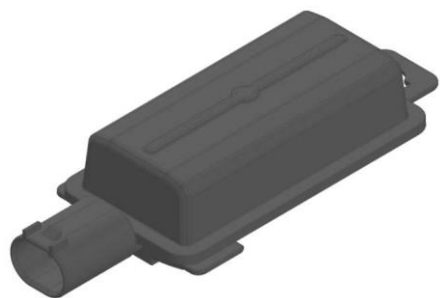
사진자료 1_아우모비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참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겨냥한 모빌리티 기술 공개

아우모비오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ITS World Congress)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차량용 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자료 2_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강릉 ITS 세계총회 (ITS World Congress)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동윤 아우모비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특별 연설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검증된 기술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사진자료 3_휴머노이드 플랫폼이 최초 적용된 아우모비오 차량용 오디오 기술 '액추에이티드 사운드(Ac2ated Sound)'

‘액추에이티드 사운드 (Ac2ated Sound)’는 외장 패널 자체를 진동시켜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리스 오디오 기술로, 기존 스피커 인클로저나 그릴 없이 패널에서 직접 음성을 출력할 수 있다.

Press release

보도자료 문의

최혁철 책임매니저

+82-70-7914-4942



사진자료 4_ 차량용 제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아우모비오 고성능 컴퓨팅(HPC) 기술

아우모비오의 고성능 컴퓨팅(HPC) 기술은 센서 데이터 처리와 AI 추론, 로봇 동작 제어를 지원하며, 차량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활용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스템 복잡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진자료 5_휴머노이드 로봇의 사물 인식과 주변 환경 탐색을 지원하는 GMSL2 기반 아우모비오 카메라 기술

아우모비오의 카메라 기술은 GMSL2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시각 정보를 전달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물 인식과 주변 환경 탐색을 지원하며, 물체 조작과 이동, 장애물 회피 등에 활용될 수 있다.